

가족지원·생활문화 한 건물에... 금천구가족문화센터, 독산동 개관

154억 투입해 지하 1층~지상 8층 복합공간 조성... 2층엔 독산생활문화센터, 3~8층은 가족센터
전종미 센터장 “더 넓어진 공간에서 더 깊고 세심하게... 나가실 때 미소 머금고 가실 수 있도록”
2층 ‘별마루’는 금천문화재단 운영... “생활문화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공간”, 올해는 시범 운영



지난 2월 11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금천구가족문화센터가 문을 열고 개관식을 진행했다. 기존 금천가족센터가 이전한 것으로, 구는 총 154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665.2㎡,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했다.

금천구가족문화센터는 한 건물 안에 가족 지원 기능과 생활문화 공간을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센터 2층에는 다목적실과 연습실 등을 갖춘 생활문화공간 ‘독산생활문화센터 별마루’가 들어섰다. 별마루는 금천문화재단이 운영을 맡는다.

개관식에서 금천문화재단 서영철 대표이사는 별마루가 문성고개 지명에서 이름을 따, ‘문성’의 순우리말인 ‘별’과 ‘고개’를 뜻하는 ‘마루’를 결합한 명칭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생활문화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고 이어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기존 시흥 권역 중심으로 운영되던 생활문화 활동이 독산 권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과 생활문화 주제 간 교류, 다양한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는 또 “올해는

첫해인 만큼 시범 운영 기간으로 두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운영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3층부터 8층까지는 요리교실, 상담실, 교육실, 강당 등을 갖춘 가족센터 공간으로 운영된다. 부모교실과 가족상담 등 상담·교육 중심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형태와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같은 건물에는 1인가구지원센터, 지역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도 마련돼,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천구는 시설 통합 운영을

통해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가족지원과 문화 활동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개관식은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에 이어 기념 떡 커팅, 기념 촬영,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축사에는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장, 김성준 서울시의원, 최기찬 서울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운영기관 측에서는 금천문화재단과 성신여자대학교 관계자도 함께했다.

개관식에서 전종미 센터장은 “그동안 공간적인 제약으로 담아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더 넓어진 공간 안에서 더 깊게, 더 세심하게 금천구의 가족을 채

우고 오늘을 채우고 내일을 응원하는 소임을 다하는 가족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마음 아픈 사람들의 따뜻한 쉼터가 되기도 하며, 1인가구·다문화가정·맞벌이 가정 등 모든 가족이 소외됨 없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센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가실 때 미소를 머금고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가족센터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심성보 기자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통과... 기본방향부터 다시 묻자

도병두 구의원 발의, 인공지능 기본법 근거. AI 격차와 윤리 통제 장치 설계해야

금천구의회가 2월 1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통과시켰다.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자문단 설치, 행정 도입과 산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기초자치체 차원에서 인공지능 정책의 제도적 틀을 세운 점은 의미가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흐름이기도 하다.

조례 검토보고서는 최근 챗GPT, 제미니, 퍼플렉시티 등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행정·산업·교육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

현재 금천구 행정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동결정은 아직 현실의 문제라기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가깝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행정 보조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을

체 조항은 거의 없다. 금천구 역시 윤리 기준 마련 근거는 담았지만, 실질적 통제 장치는 앞으로 설계해야 한다.

AI 격차가 새로운 계층 격차가 되지 않으려면



도서관·평생학습관 연계 무료 활용해야 한다. 선언이 아니라 작동